

여수, 국제섬박람회 D-300 앞두고 시민들과 해양정화 활동

돌산을 안굴전 외치도 해안가서 해양쓰레기 수거

민·관·산·학 박람회 성공 기원 블루카본 토론회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D-300일을 앞두고 해양정화 활동과 블루카본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며 섬박람회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돌산을 안굴전 외치도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양환경연구조단 여수구조대, 한영대학교, ㈜KCC 여천공장, 여수꽃사도, 한국부인회 그랜리더, 남해안신문, 여수넷뉴스, 여수시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대형 포대 100여개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시에서 지원한 정화선을 통해 육상으로 운반·처리했다. 오후에는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에서 여수시,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블루카본 활성화 토론회’가 이어졌다. ‘블루카본’은 갯벌, 잘피밭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보유한 여수시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오며 관련 실태조사와 보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전남대학교 김은식 교수의 여수시 블루카본 탄소흡수량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정신출 여수시의원, 김태형 전남연구원 연구원, 김태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실장 등의 여수 해양탄소흡수원 활성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의 자연환경 회복을 통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취지를 시민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해양정화활동과 블루카본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D-300일을 앞두고 시민들과 돌산을 안굴전 외치도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광주과학관,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시 관람 서비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시 관람 서비스를 조정하는 모습.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AI·로봇·햅틱 융합 포용적 환경 구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과 함께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시 관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2층 상설전시관에서 광주세광학교 시각장애인 학생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시각 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포용형 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로봇이 전시물의 위치를 인식해 음성 안내와 진동 피드백을 제공하면 체험자는 햅틱 장갑을 통해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감각적으로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증 구역은 과학관 상설전시관에 위치한 토네이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파도를 만들어요, 우주에서 우주복을 입지 않

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활 속에는 어떤 우주 기술이 있을까 등 인기 체험전시품 4종으로 구성됐다. 실증기간 동안 시각장애인 단체 및 일반 관람객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참여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안전하게 전시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우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연구원은 “이번 실증 서비스는 과학기술을 통해 장애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전시환경을 조성한 뜻깊은 시도”라며 “장애물 없는 과학관실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실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과학관과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릴레이 챌린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사진)은 11월 4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탄소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꿈의 기술’로 불린다. 김태균 의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연구 역량과 인프라, 지진에 안전한 기반암 지질을 두루 갖춘 전남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전라남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유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이현창, 나광국 도의원을 지목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동관 전남농기원 과장, 대산농촌상 영예

녹두·동부 기계화 품종 개발...지역농업 가치 제고

전남도농업기술원 김동관 자원경영과장(사진)이 ‘제34회 대산농촌상’ 농업공직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과장은 30여 년간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용 중심의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현장형 연구 공적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녹두와 동부의 일사확행 기계화 품종 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지역농업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기존의 녹두와 동부 재배는 인력 의존도가 높아 노동 강도가 큰 작물이었으나, 김 과장은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분석하고 반유한 직립형 개체를 선발·교배해 콤바인으로 한 번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



절강, 농기당 재배면적 100배 이상 확대,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김동관 과장은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대산농촌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상은 함께 연구한 동료들과 믿고 응원해주신 농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을 개발했다. 그 결과 △녹두 ‘다현’, ‘산포’ △동부 ‘옥당’, ‘선현’ 등의 품종이 탄생했으며, 맞춤형 생력재배 기술을 통해 노동력 90% 이상 절감, 농기당 재배면적 100배 이상 확대,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광주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 ‘화합의 장’

광주시북구체육회는 최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체육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문인 북구청장, 북구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단체 회장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 식전에는 난타 공연과 메이퀸스라인댄스팀의 공연이 펼쳐져 활력을 더했다. 본 행사에서는 북구 체육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6개 부문에

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풍성한 경품과 기념품이 증정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정희환 북구체육회장은 “‘제1회 광주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가한 내빈분들을 비롯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축제가 북구 주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민 친화적인 체육 행사들을 꾸준히 기획,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북구체육회는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체육회 임직원·관계자 등 300명 참석
6개 부문서 시상식...전원 경품 증정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시니어를레인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김중환씨 별세. 김정현(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숙향씨 부친상. 김정위(전 곡성군 삼기면장) 숙부상. 김혜소(경기여성가족재단 대표) 시부상. 정성근(예비역 준장) 장인상. 김보영·은지·지호 조부상. 정민정·명수 외조부상=3일 곡성성전진례식장. 발인 5일 오전 6시20분. 장지 전북 임실 호곡원. 061-362-9200.

운세 (음력 9월 16일)

48년생 오늘 집에 있는 것이 좋다
60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자
72년생 자급 용동이 순조로워 질 것
84년생 사고가 우려되니 외출을 삼가라
96년생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
51년생 번거롭더라도 내가 직접 해야한다
63년생 신경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5년생 지금이 집정만의 좋은 기회
87년생 경쟁성이 있는 일을 양보하면 탈 있다
99년생 가족들에게 속 사정을 털어 놓자
54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 것
66년생 안간힘을 쓰고 있는 흐름이다
78년생 우리가 따른다면 진행하지 말자
90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는다
57년생 도움 청하면 고만이 해결될 수 있다
69년생 매대는 손재수를 불러들일 수 있다
81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많이 나타난다
93년생 돈소문은 돈소문으로 끝난다
49년생 자녀 간에 문제는 해결 될 것
61년생 투자 아끼지 않으면 재물운이 있을 것
73년생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85년생 동료들 맞지 말 것
97년생 친구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52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 중된 것에 관심둔다
64년생 피곤 빠져 손해볼 우려가 있으니 조심
76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88년생 형제자 사들려 화해
55년생 뒷방에 지인이 도움을 주는구나
67년생 모험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79년생 지인들과 무모한 일에 손대지 말라
91년생 뒷사람이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다
58년생 우선 가족들을 선택하라
70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 있다
82년생 시간 낭비하지 말고 큰 일에 몰두하자
94년생 새 계획 설계할 때가 왔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62년생 기본적인 형식을 중시해야 한다
74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라
86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 없다
98년생 능력 과시는 금물
53년생 주식 투자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자
65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금물
77년생 가을 끝에 오는 비와 같은 날
89년생 교통법규 잘 지켜자
56년생 원리 원칙으로 행하라
68년생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80년생 마음을 달래 줄 이성이 찾아온다
92년생 이상형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 어렵다
59년생 시일이 걸릴 수 있다
71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83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자
95년생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